■ 산림청, 전국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한라산 구상나무 지켜낼 비법은…

쇠퇴도 39%로 가장 심해 개체군 유지도 위협받아

산림청, 멸종위기 놓인 곳 우선복원대상지 선정키로

산림청이 2017~2018년 2년동안 전국의 고산 침엽수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라산의 구상나무 쇠퇴도가 39%로,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DB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의 '떼죽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우선 복원 대상지' 선정에 나서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눈잣나무, 주목 등 '7대 고산 침엽수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전국 31개 산지·1만2094ha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역별로는 지리산 5198ha, 한라산 1956ha, 설악산 1632ha, 오대산 969ha 등의 순이다.

조사 결과 구상나무는 전국적으로 6393ha에 약 265만본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3%에 달하는 구상나무가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라산의 경우는 쇠퇴도가 3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심했다. 쇠퇴도는 나무의 수관활력도와 수간건강도, 고사목 발생률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한라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온도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시에 고산지역의 극한 기상특성도 크게 작용해 '쓰러져 죽는 고사목'이 48%에 달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린나무의 개체수가 적고 나무들의 연령구조가 불안정해 지속적인 개체군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사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해 '우선 복원 후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보전·복원 정책을 가장 먼저 적용 받게 되는데, 한라산 구상나무의 경우 고사 위기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우선 복원 대상지 선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은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현재 1차 분석을 마쳤고, 향후 어린나무 개체수에 대한 추가 조사만 이뤄지면 조만간 우선 복원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라며 "한라산이 선정될 지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상나무 생육 현황을 살펴보면 지리산 161만본, 한라산 98만본, 덕유산·남덕유산 7만본 등으로 조사됐다. 송은범기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일가족 4명 병원 치료

8일 오전 2시3분쯤 제주시 한경면 단독주택에서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자고 있던 가족 4명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온돌용으로 쓰이던 아궁이 연기를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그저 웃음이… 8일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도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체육공원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내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4·3희생자-유족 자녀 장학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5월 7~21일 4·3희생자·유족의 후손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모두 18명(대학생 8명, 고등학생 10명)이며, 대학생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 장학사업위원회는 신청자의 가정환경과 학교성적, 품행 등을 종합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27일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6월 1일 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다. 표성준기자

제주4·3-광주5·18 교육 전국화 모색

9~10일 광주서 2차 포럼… 지난 4월 제주서 첫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제주4·3과 광주5·18을 연계한 '평화·인권교육'방안 모색 및 전국화를 위한 공동 2차 포럼을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제주에서 '4·3과 5·18, 평화·인권교육으로 전국을 잇다'를 주제로 '2019 제주-광주 공동 1차 포럼'이 열린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는 제주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4·3관련 단체 등이, 광주에서는 장휘국 교육감과 광주교육청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4·3과 5·18민주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 상호 교환을 통해 4·3과 5·18민주화 교육의 전국화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포럼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의 '4·3과 5·18 이야기' 기조강연에 이어 4·3과 5·18교육 수업사례에 대해 우옥희 대정고 교장과 최승원 광주 일신중 교사의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이 끝난 후 제주 교육청 관계자들은 10일 광주 백운초등학교를 방문해 5·18교육 수업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주포럼 개최

내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반도체 초기술격차 전략' 주제

제9회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제주포럼이 10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초기술격차 전략'의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제주대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진공학회,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2019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열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리더들이 대거 참석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발자들이 D램 기술, 3D 낸드 플레시 메모리 기술,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기술들을 발표한다. 한양대 박재근 교수는 STT-M램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기술격차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원제형 대표, 세메스 김홍석 상무, 한국야스카와전기 시이나 알버트 대표, 메카로 이종수 사장,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의 박재근 회장이 초청강연에 나선다. 이들은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 장비개발 R&D 전략, 시스템 자동화 방안과 전구체 시장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한다.

포럼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제주대 산학협력단 부설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센터(센터장 전자공학전공 이광만 교수) 개소식이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택시 부수고 응급실서 난동 6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10분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왜 나를 깨워"라고 말하면서 돌멩이로 택시를 내리쳐 약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9시30분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30분 동안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를 손괴하고,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